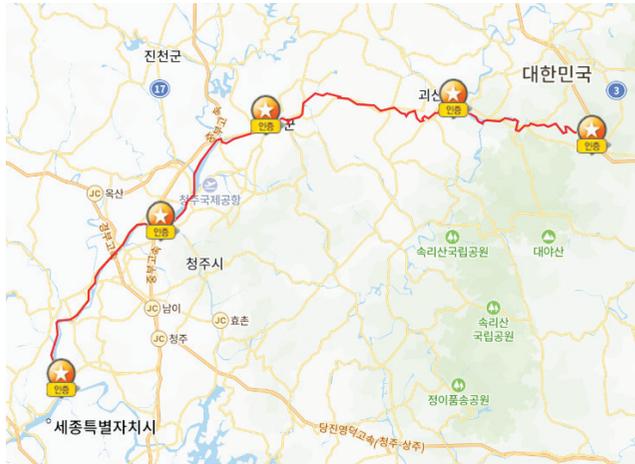


자전거 도로 정보 4편 - 오천자전거길 -



코스정보 행촌교차로(시점) - 쌍천 - 산막이 옛길 - 달천 - 괴강교 - 괴산읍내 - 성황천 - 보강천 생태공원 - 백로공원 - 미호천 - 팔결교 - 정북토성 - 문암생태공원 - 연꽃공원 - 합강공원(종점)

전체거리 종주노선 105km **소요시간** 6시간 30분

난이도

다섯 개(五) 하천(川)을 따라 새재와 금강을 잇는 오천 자전거길

충북 괴산군에서 증평, 청원을 거쳐 세종시까지 쌍천, 달천, 성황천, 보강천, 미호천 총 다섯 개의 수려한 하천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길이라는 의미로 오천자전거길이라 이름 붙여진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훼손하지 않고 조성된 이곳은 조그마한 오솔길, 독방을 따라 너른 논과 밭, 하천을 달리며 감상하는 코스로서 정겨운 고향에 온 듯한 여유와 편안함을 선사해 줄 것이다.

오천자전거길은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온 국토종주자전거길 중 새재와 금강을 연결하는 코스로, 이제 수도권이나 영남권에서 새재를 거쳐 세종시까지, 다시 금강변을 따라 서해까지 이어지는 지역 간 소통의 자전거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THEMA

① 달천과 성황천이 만나는 그림 같은 비경 괴강교

달천을 따라 흐르는 자전거길이 성황천으로 뻗어 나가는 길목에 1953년에 가설된 괴강교라는 오래된 교량이 있다. 괴강교는 도로가 새로 나면서 철거예정이었으나 역사적, 교육적인 가치를 감안해 보존하고 있다고 한다. 교량형식은 게르베교로 연속 교량의 중간 중간에 경첩을 적당히 달아 고정된 구조의 교량이다. 이 교량은 과거 괴산군민들의 정서를 간직해 오면서 괴산과 칠성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다. 현재는 자동차가 통행을 하지 않고 있으나 자전거길과 일부 관광객들만이 걸어서 통행을 하고 있다. 자전거길로 새로 태어난 괴강교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가히 오천자전거길 제일의 비경이라 할 만큼 빼어나며, 조금 더 편안하게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전망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② 철새와 연꽃의 아름다움에 취하는 미호천

미호천은 충청북도 음성군 부용산에서 발원하여 금강으로 합류하는 하천이다. 미호천 양안의 퇴적물로 이루어진 모래톱과 수변 식생이 어우러져 하천 습지가 발달하였다. 미호천 자전거길은 백로, 청둥오리 등의 철새와 끊임없이 펼쳐진 갈대의 어우러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세종시에 이르면 수 만송이의 연꽃이 만발한 연꽃공원의 아름다움을 봄에서 가을까지 즐길 수 있다. 미호천을 따라 달리는 라이딩은 마치 자연의 품안에서 뛰노는 신선과 같은 신비로움을 선사해 줄 것이다. 🇰🇷

참고자료

-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www.bike.go.kr)
- 네이버지도(map.naver.com)

(다음 호에 계속) - 자전거 도로 정보 5편

